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의미와 샹까라의 풀이

박효엽*

I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여러 의미들. II 고전 우빠니샤드의 ‘우빠니샤드’ 용례. III ‘우빠니샤드’ 용례에 대한 샹까라의 풀이.
IV 그 외 샹까라의 풀이. V 샹까라와 ‘우빠니샤드’의 의미.

요약문 [주요어: ‘우빠니샤드’라는 말, 의미, 샹까라, 다차원적인 의미, 연결]

고전 우빠니샤드 자체에 등장하는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와 관련하여 서구의 여러 학자들은 ‘숨배, 비밀스러운 교의, 등치, 연결, 관계, 유효한 힘, 실재 등’ 제각각 한 가지 의미씩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고전 우빠니샤드에 관해 최초의 주석이자 가장 권위 있는 주석을 쓴 샹까라는 이 말에 대해 여러 의미를 가진 것으로 풀이한다. 그가 제시하는 의미는 대략 12가지 정도에 이르며 그 핵심은 ‘비밀, 명상, 지식’이다.

‘우빠니샤드’라는 말에 대한 샹까라의 이러한 풀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우빠니샤드는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진다.

둘째, 우빠니샤드는 무언가가 가지는 ‘비밀스러움’이라는 특성을 넘어 ‘비밀’ 그 자체를 의미한다.

셋째, 우빠니샤드는 ‘우빠사나로서의 명상’에서 ‘실재에 대한 지식’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넷째, 샹까라는 우빠니샤드의 의미를 결코 제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는다. 다섯째, 샹까라가 제시하는 의미들과 서구 학자들이 제시하는 ‘연결’을 고려한다면, 우빠니샤드는 연결을 지시하는 말이나 문장, 연결이 낳는 비밀스러운 특성, 연결 그 자체의 비밀성, 연결을 바탕으로 삼는 명상, 연결되는 존재들의 배후에 있는 힘, 연결의 토대인 실재에 대한 지식 등을 의미할 수 있다.

* 박孝燁 : 경북대학교 시간강사. anavrtti@hanmail.net.

I.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여러 의미들

어원적으로 ‘우빠니샤드’(upaniṣad)라는 말은¹⁾ ‘upa’(가까이), ‘ni’(내려, 아래에), ‘sad’(앉다)로 나뉘 풀이됨으로써 ‘제자들이 스승의 가까이 내려앉은 채로 전수 받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 말은, 고전 우빠니샤드들²⁾ 자체에 수차례 등장하면서, 예를 들어 Chandradhar Sharma의 경우처럼 ‘실재에 대한 비밀스러운 가르침’(rahasya, guhya-vidyā)³⁾을 의미한다고⁴⁾ 마치 상식과도 같이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빠니샤드의 의미와 관련하여 몇몇 서구의 학자들은 그 의미를 ‘비밀’(rahasyam) 등에 한정해서 이해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한 바 있다. 그들이 최근까지 제시한 의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⁵⁾

-
- 1) 이하, 제목을 제외하고는 ‘우빠니샤드’라는 낱말에 작음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또 ‘...라는 말’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하지 않는다.
 - 2) 이 글에서 고전 우빠니샤드들은 Olivelle(1998)을 그 출처로 삼는다. 그리고 고전 우빠니샤드들에 대한 상카라의 주석은 Samata Books에서 펴낸 *Complete Works of Sri Sankaracharya* 8, 9, 10을 그 출처로 삼는다. 다만 *Śvetāśvatara-upaniṣad-bhāṣya*의 경우는 Gita Press의 판본을 그 출처로 삼는다.
 - 3) 글자 그대로 ‘rahasya(m)’는 ‘비밀’을 뜻하고 ‘guhya-vidyā’는 ‘숨겨진 지식’을 뜻한다.
 - 4) Sharma(1960) p. 17 참조.
 - 5) Cohen(2008) pp. 3-4 참조. 이 표는 Cohen이 열거한 선행연구들에 Cohen 자신이 제시한 의미를 포함시켜 필자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Cohen이 선행연구들에 관한 출처를 각주에 각각 제시해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그 출처를 생략하기로 한다. 참고로, 표에 제시된 9가지 의미의 영어 표현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①worship, ②secret doctrine, ③the equivalence between two magical substances, ④connection, ⑤the fact of two things

학자	우빠니샤드의 의미
㉑Oldenberg	승배(우빠사나와 관련된 것)
㉒Deussen	비밀스러운 교의(教義)
㉓Schayer	두 마법적 실체들 사이의 등치(等值)
㉔Renou	연결
㉕Gren-Eklund	서로가 하나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두 사물들에 관한 사실
㉖Falk	유효한 힘
㉗Olivelle	숨겨진 연결
㉘Witzel	마법적 등치의 공식(公式)
㉙Cohen	밑에 놓인 실재

이 가운데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P. Deussen이 제시한 ㉒‘비밀스러운 교의’라는 의미이다. 사실상 이것이 오늘날 우빠니샤드에 대한 의미로 꽤 폭넓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가까이 앓기, 비밀스러운 앓기’라고 지적하면서, 이 말이 ‘비밀스러운 상징, 이름, 의의, 말, 공식, 교의’를 의미하기에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밀’이라는 의미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⁶⁾ 中村 元도 “우파니샤드란 원래 시좌(侍坐), 근좌(近坐) 또는 비밀의 회좌(會座)라는 의미이며, 후에는 비밀의 의의(意義), 비설(秘說), 비교(秘敎)라는 의미가 되었다.”⁷⁾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건대 Deussen이 제시한 의미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㉓, ㉔, ㉕, ㉗, ㉘의 다섯 가지 의미들이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㉓의 등치(equivalence), ㉔의 연결(connection), ㉕의 관계(relation),

being placed in a relation to each other, ㉖effective power, ㉗hidden connection, ㉘formula of magical equivalence, ㉙underlying reality.

6) Deussen(1999) p. 13, 15 참조.

7) 中村 元(1983) p. 30 참조.

㉔의 연결, ㉕의 등치는 무언가 하나의 의미로 묶일 수 있는 여지를 보인다. 물론 등치와 연결은 엄밀하게 따질 경우에 상이한 개념이나 맥락으로 사용되겠지만, 등치, 연결, 관계는 모두 둘이나 둘 이상의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양상을 다양하게 지시하는 말들이기 때문이다.⁸⁾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의 집합은 적어도 잘 알려져 있는 의미인 ‘비밀스러운 가르침’과는 분명 다른 것이 확실하다. Black은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종합하여 우빠니샤드가 그것이 사용되는 초기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존재들 사이의 연결’(a connection between things)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한 바 있다.⁹⁾ 결과적으로, Olivelle이 지적하듯이, 어쩌면 연결 자체가

8) Olivelle도 연결과 등치를 유사한 의미로 간주하는 듯하다. 그는 우빠니샤드가 이러한 두 의미뿐만 아니라 ‘위계’(hierarchy)의 의미도 가진다고 덧붙인다. Olivelle(1998) p. 24 참조.

9) Black(2007) p. 6 참조. 필자는 ‘things’를 ‘사물들, 대상들’이라고 이해하기보다 ‘존재들’(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연결이라는 것은 물리적 존재인 사물뿐만 아니라 심리적 존재에도 적용되고 대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결’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 말이 이 세계의 다양한 양상들에 속하는 여러 존재들(요소들) 사이의 실질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가상적인 관계 맺기라고 생각한다. 그 양상들은 대표적으로 신격적(adhidaivam) 양상, 인격적(adhyātman) 양상, 대상적(adhibhūtam) 양상으로 나뉘고, 이 각각의 양상은 더 세부적인 여러 양상들로 나뉘기도 한다. 물론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제의적 양상, 음성(音聲)적 양상 등도 매우 중요하다. Olivelle(1998, p. 24)은, 베다의 초기 문헌들에서는 우주적(신격적) 양상과 제의적 양상 사이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었고, 우빠니샤드에서는 우주적 양상과 인격적 양상 사이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연결의 무수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쁘라슈나 우빠니샤드』 3.8-9에서는 생기의 양상과 세상의 양상을 연결한다. 구체적으로는 뿌라나(prāna)와 태양, 아파나(apāna)와 땅, 사마나(samāna)와 허공, 브야나(vyāna)와 공기, 우다나(udāna)와 불을 각각 서로 연결한다. 그리고 이 연결을 통해 불멸성을 획득한다고 전한다. 덧붙이자면, ‘연결’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 용어로는 Olivelle(1998, p. 24)이 제시하는 ‘bandhu’와 별도로 ‘anubandha’나 ‘samhitā’가 있다. ‘anubandha’는 『브라흐마 수뜨라』(Brahma-sūtra) 3.3.50에 등장하며 우빠니샤드의 명상인 우빠사나를 가능케 하는 ‘양상들 사이의 연결’을

‘숨겨진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빠니샤드마저도 ‘비밀스러운’(숨겨진) 가르침을 의미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마침내 그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텍스트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⁰⁾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의미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 의미들이 예외 없이 우빠니샤드가 단일한 의미라는 가정 아래 제시된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의 의미로 묶일 수도 있는 ㉔, ㉕, ㉖, ㉗, ㉘의 다섯 가지는 각각 그 강조점을 달리하는 단일한 의미이다. 또한 다른 의미들과 거의 겹점을 가질 수 없는 듯한 ㉙, ㉚, ㉛도 각각 단일한 의미이다. 결국 각각의 학자들은 나름대로 우빠니샤드의 의미에 관해 설득력 있는 추정을 제시했겠지만, 대부분 우빠니샤드가 단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¹¹⁾

이와 같은 사정에서 우빠니샤드의 의미를 상까라(Śankara, 기원후 8세기경)에 기대어 파악해 보는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주석이 고전 우빠니샤드에 대해 최초인 것이자 가장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빠니샤드라는 말에 대한 그의 풀이는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하다. 또한 그는 우빠니샤드라는 문헌에 절대적인 위상을 부여하면서 가끔 그 말을 별도로 풀이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상까라가 우빠니샤드라는 말을 이해하는 바는 그

의미한다. ‘samhita’는 뒤에서 논의할 예정인 TaUp 1.3.1의 ‘연결에 대한 우빠니샤드’에 등장한다. ‘samhita’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함께 놓음, 함께 모음’을 뜻한다.

10) Olivelle(1998) p. 24 참조.

11) 필자는, 결론에서 알려지겠지만, 서구의 학자들이 제각각 단일한 의미를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할 뿐 비판하려고 의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빠니샤드 자체의 맥락에서 우빠니샤드의 의미를 밝혔기 때문에 상까라의 주석을 통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필자는 우빠니샤드가 단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당연히 가정하는 것을 넘어설 필요도 있다는 점을 의도한다.

말에 대해 인도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해설 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까라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명료하게 확인된다면, 그가 제시한 의미들과 서구의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의미들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II. 고전 우빠니샤드의 ‘우빠니샤드’ 용례

상까라의 저작으로 알려진 것들 가운데 고전 우빠니샤드에 대한 주석들은 대체로 위작(僞作)이 아니라 진작(眞作)에 가깝다. 그가 주석한 고전 우빠니샤드들은 일반적으로 『브리하다란야까 우빠니샤드』(*Bṛhadāraṇyaka-upaniṣad*, 이하 BrUp), 『찬도그야 우빠니샤드』(*Chāndogya-upaniṣad*, 이하 ChUp), 『이샤 우빠니샤드』(*Īśā-upaniṣad*), 『께나 우빠니샤드』(*Kena-upaniṣad*, 이하 KeUp), 『까타 우빠니샤드』(*Kātha-upaniṣad*), 『따잇띠리야 우빠니샤드』(*Taittirīya-upaniṣad*, 이하 TaUp), 『아이따레야 우빠니샤드』(*Aitareya-upaniṣad*), 『문다까 우빠니샤드』(*Muṇḍaka-upaniṣad*, 이하 MuUp), 『만두꾸야 우빠니샤드』(*Māṇḍūkya-upaniṣad*), 『쁘라슈나 우빠니샤드』(*Praśna-upaniṣad*), 『슈베따슈바따라 우빠니샤드』(*Śvetāśvatara-upaniṣad*, 이하 ŚvUp)라는 11개가 꼽힌다. 이 가운데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등장하는 고전 우빠니샤드는 BrUp, ChUp, TaUp, MuUp, KeUp, ŚvUp로서 총 6개이다. ŚvUp에 대한 상까라의 주석은 진작인지 위작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그것을 진작으로 간주해도 논의를 전개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6개와는 별도로 고전 우빠니샤드에 속하는 『까우쉬따

끼 우빠니샤드』(*Kauṣītaki-upaniṣad*)에서도 그 2.1과 2.2에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상까라는 이 우빠니샤드에 대해 주석을 쓰지 않았다.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등장하고 상까라의 주석이 가해진 6개의 고전 우빠니샤드에서 그 용례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²⁾

출처	격변화 낱말	문법 형태
BrUp 2.1.20	upaniṣat	1격 단수
BrUp 2.4.10	upaniṣadaḥ	1격 복수
BrUp 3.9.26	aupaniṣadam	2격 단수, 형용사
BrUp 4.1.2	upaniṣadaḥ	1격 복수
BrUp 4.2.1	upaniṣadbhiḥ uktupaniṣatka(h)	3격 복수 1격 단수, 복합어
BrUp 4.5.11	upaniṣadaḥ	1격 복수
BrUp 5.5.3	upaniṣad	1격 단수
BrUp 5.5.4	upaniṣad	1격 단수
ChUp 1.1.10	upaniṣadā	3격 단수
ChUp 1.13.4	upaniṣadam	2격 단수
ChUp 3.11.3	brahmopaniṣadam	2격 단수, 복합어
ChUp 8.8.4	etadupaniṣado upaniṣadam	1격 복수, 복합어 2격 단수
ChUp 8.8.5	upaniṣat	1격 단수
TaUp 1.3.1	upaniṣadam	2격 단수
TaUp 1.11.4	vedopaniṣat	1격 단수, 복합어
TaUp 2.9.1	upaniṣat	1격 단수

12) 표에서는 우빠니샤드의 연대기적 순서를 다소 고려했다. BrUp, ChUp, TaUp의 순서는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편이다. KeUp와 MuUp의 경우는, Olivelle(1998, p. 13)에 따르면 KeUp가 앞서고 Cohen(2008, p. 287)에 따르면 MuUp가 앞선다. ŚvUp는 그 주석의 진위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배치했다.

TaUp 3.10.6	upaniṣat	1격 단수
MuUp 2.2.3	aupaniṣadam	2격 단수, 형용사
KeUp 4.7	upaniṣadam	2격 단수
	upaniṣat	1격 단수
	upaniṣadam	2격 단수
ŚvUp 1.16	brahmopaniṣatparam	1격 단수, 복합어
ŚvUp 5.6	vedaguhyopaniṣatsu	7격 복수, 복합어

이 용례들에서 표면적으로 특기할 만한 점은 다음 몇 가지이다. 우선 우빠니샤드라는 말은 ‘upaniṣad’라는 명사의 형태로 대부분 등장하고 ‘aupaniṣada’(우빠니샤드에 속하는, 우빠니샤드와 관계하는)라는 형용사의 형태로 두 차례 등장한다. 대다수의 용례에서 이 말은 1격(주격)과 2격(대격)으로 사용되지만 3격(구격)으로 두 차례, 7격(처격)으로 한 차례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복합어를 이루는 경우에 이 말은 ‘brahman’이라는 말, ‘veda’라는 말과 각각 두 차례 결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KeUp 4.7에서는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문답의 형식으로 세 차례나 연속해서 등장한다.

III. ‘우빠니샤드’ 용례에 대한 상까라의 풀이

가장 먼저 BrUp 2.1.20의 경우는 BrUp 5.5.3, 5.5.4와 함께 묶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 경우는 모두 ‘tasyopaniṣat(-d) ~ iti’(그것의 우빠니샤드는 ~이다)라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 BrUp 2.1.20: 그것(아뜨만)의 우빠니샤드는 ‘진리의 진리’(실재의 실재)입니다.¹³⁾

- BrUp 5.5.3: 그것(브라흐만)의 우빠니샤드는 ‘아하르’(낮)이다.¹⁴⁾
- BrUp 5.5.4: 그것(브라흐만)의 우빠니샤드는 ‘아함’(나)이다.¹⁵⁾

상까라는 『브리하다란야까 우빠니샤드 주석』(*Bṛhadāraṇyaka-upaniṣad-bhāṣya*, 이하 BrUpBh) 2.1.20에서 “가까이 즉 근처로 다가가게 하는 것 또는 지시하는 말이 우빠니샤드라고 불린다”¹⁶⁾라고 말한다. 즉 우빠니샤드란 ‘어떤 것을 지시하는 말’로서 바로 그 말이 가지는 특별성을 통해 그 어떤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요컨대 우빠니샤드란 ‘①어떤 것에 가까이 다가가게끔 지시하는 말’이다. 여기서 아뜨만에 가까이 다가가게끔 지시하는 말은 즉 우빠니샤드는 ‘진리의 진리’ 또는 ‘실재의 실재’(satyasya satyam)이다. 다른 한편, BrUpBh 5.5.3에서 상까라는 우빠니샤드의 유의어로 ‘비밀스럽게 지시하는 것’(rahasyam abhidhānam)을 제시한다. 그리고 ‘아하르’라고 “그렇게 지시됨으로써 지시되고 있는 그 브라흐만을 향해 그는 이 세상에서처럼 고개를 돌린다.”¹⁷⁾라고 덧붙인다. 즉 브라흐만이 ‘아하르’라고 지시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시되는 것을 향해 고개를 돌리듯이, 그 브라흐만을 향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빠니샤드란 ‘②관심을 가지게끔 비밀스럽게 지시하는 말’을 가리킨다. BrUp 5.5.4는 5.5.3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상까라는 BrUpBh 5.5.4에서 설명을 생략한다.

이와 관련하여 Falk는 ‘A는 B의 우빠니샤드이다’(B의 우빠니샤

13) tasyopaniṣat satyasya satyam iti. 이하 고전 우빠니샤드에 대한 번역은 상까라의 주석을 최대한 반영한다. 특히 지시어의 경우 상까라가 주석에서 명시한 것을 괄호 안에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14) tasyopaniṣad ahar iti.

15) tasyopaniṣad aham iti.

16) upa samīpaṃ nigamayātīti abhidhāyakaḥ śabda upaniṣad ity ucyate.

17) yenābhidhānena abhidhīyamānaṃ tad brahma abhimukhī bhavati lokavat.

드는 A이다)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이를 ‘A는 B를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A is that which causes B to come into existence)라고 이해한다.¹⁸⁾ 그래서 그는 우빠니샤드를 ‘유효한 힘’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상까라의 경우에 B는 어김없이 브라흐만 또는 아뜨만이기 때문에 A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B를 존재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상까라의 풀이는 Falk의 풀이와 매우 상이한 셈이다.

다음으로 BrUp 2.4.10, BrUp 4.1.2, BrUp 4.5.11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문헌 또는 문장을 나열하는 가운데 ‘upaniṣadaḥ’라는 1격 복수가 등장하므로 함께 묶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경우에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앞뒤로 열거되는 문헌 또는 문장의 이름들은 똑 같다.

- BrUp 2.4.10, BrUp 4.1.2, BrUp 4.5.11: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아타르바-양기라사, 이띠하사(서사집), 뿌라나(전설집), 비드야(분과학문), 우빠니샤드들, 술로까들(시구들), 수뜨라들(경전들) ...¹⁹⁾

사실 이 세 경우는 우빠니샤드가 다른 문헌들 또는 문장들과 관계 속에 놓여 있으므로 그 정체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상까라는 BrUpBh 2.4.10에서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아타르바-양기라사를 4종류의 만뜨라(mantra)라고 간주하고, 이띠하사(itihāsa)를 이야기(대화)식의 문장들이라고 규정하고, 뿌라나(purāṇa)의 예시로 TaUp 2.7.1의 “실로 태초에 이것(세계)은 비존

18) Cohen(2008) p. 5 참조. H. Falk는 “Vedisch upaniṣād”(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36, 1986, 80 ff)라는 글에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19) ṛgvedo yajurvedaḥ sāmavedo 'tharvāṅgīrasa itihāsaḥ purāṇaṃ vidyā upaniṣadaḥ ślokāḥ sūtrāny ...

재였으리라.”라는 문장을 든다. 그리고 우빠니샤드의 예시로 BrUp 4.1.3의 “이것을 소중한 것으로 계속 명상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든다.²⁰⁾ 솔로까란 ‘산문으로 쓰인 글’(브라흐마나)에서 종종 인용되는 시구(만뜨라) 형태의 문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점에서 우빠니샤드란 ‘③계속적 명상(우빠사나)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들’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시로 든 BrUp 4.1.3의 내용이 우빠사나(upāsana) 즉 ‘계속적 명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고, 우빠니샤드를 포함하여 이띠하사, 뿌라나, 솔로까 등이 특정한 유형의 문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BrUp 4.1.2, BrUp 4.5.11은 BrUp 2.4.10과 동일하기에 상까라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우빠니샤드가 우빠사나 즉 계속적 명상과 관계하는 문장을 가리킨다면, BrUp 3.9.26과 MuUp 2.2.3에 등장하는 ‘aupaniṣadam’이라는 형용사도 유사한 맥락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래도 ‘우빠니샤드에 속하는’이라는 표현에서 우빠니샤드가 특정한 문장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rUp 3.9.26: 우빠니샤드에 속하는 그러한 뿌루샤에 관해,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²¹⁾
- MuUp 2.2.3: 위대한 무기이자 우빠니샤드에 속하는 활(옴)을 들고, 실로 명상으로 연마된 화살(아뜨만)을 재어야 한다.²²⁾

그런데 상까라는 BrUpBh 3.9.26에서 ‘aupaniṣadam’이라는 말과 관계하여 “오직 우빠니샤드들에서만 알려질 수 있고 다른 지식수단(pramāṇa)에 의해 알려질 수 없는”²³⁾이라고만 해설한다. 즉

20) upaniṣadaḥ ‘priyam ity etad upāsita’ ityādyāḥ.

21) taṃ tvaupaniṣadam puruṣaṃ pṛcchāmi.

22) dhanur gṛhītvaupaniṣadam mahāstraṃ śaraṃ hy upāsāṃ niṣitaṃ saṃdhayīta.

그러한 뿌루샤는 오직 우빠니샤드라는 지식수단을 통해서만 알려질 뿐 다른 지식수단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여기서는 계속적 명상과 관련된 상까라의 직접적 언급을 찾을 수가 없다. 이로부터 우빠니샤드는 ‘실재에 대한 지식수단’이라는 의미이다. 뿌루샤는 실재를 가리키고, 실재는 상까라의 경우 오직 우빠니샤드로부터만 알려지기 때문이다. 『문다까 우빠니샤드 주석』(*Muṇḍaka-upaniṣad-bhāṣya*, 이하 MuUpBh) 2.2.3에서도 상까라는 ‘aupaniṣadam’을 “우빠니샤드들에 존재하는 즉 우빠니샤드들에서 잘 알려져 있는”²⁴⁾이라고 해설한다. 그리고 MuUpBh 2.2.4에서 상까라는 ‘활에 재어지는 화살’의 비유와 관계하여 ‘옴(Om)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정화되는 아프만’을 말한다. 결국 MuUp 2.2.3에서 ‘aupaniṣadam’은 아프만이라는 실재를 정화하는 수단인 옴이 우빠니샤드에서 잘 알려져 있다는 뜻이고, 이로부터 우빠니샤드는 ‘실재의 수단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수단’ 즉 ‘실재의 수단에 대한 지식수단’을 의미한다. BrUpBh 3.9.26과 MuUpBh 2.2.3을 종합하면, 우빠니샤드는 ‘실재나 그 수단에 대한 지식수단’이다. 다만 실재의 수단이 ‘옴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옴에 대한 명상인 이상, 우빠니샤드는 ‘실재나 그 수단인 명상에 대한 지식수단’이다. 그리고 상까라의 경우 우빠니샤드를 지식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우빠니샤드가 증언(śabda)으로서의 문헌이라는 것을 지시하므로, 우빠니샤드란 ‘④실재나 그 수단인 명상에 대한 지식수단(문헌)’을 의미한다.

우빠니샤드가 지식수단으로 간주된다면, ChUp 1.1.10에서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3격으로 지시되므로 이것은 특정한 종류의 수단이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다.

23) upaniṣatsv eva vijñeyāḥ nānyapramāṇagamyāḥ.

24) upaniṣatsu bhavaṃ prasiddham

- ChUp 1.1.10: 이와 같이 그것(음절)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그 양자가 그것(음절)으로써 [제의를] 행한다. 하지만 지식과 무지는 다르다. 믿음, 우빠니샤드와 함께 지식을 통해 행한 바로 그것만이 더한 힘을 가진다.²⁵⁾

상까라는 『찬도그야 우빠니샤드 주석』(*Chāndogya-upaniṣad-bhāṣya*, 이하 ChUpBh) 1.1.10에서 ‘우빠니샤드와 함께’(upaniṣadā)라는 낱말을 ‘요가와 연계된 채로 또는 요가를 갖춘 채로’(yogena yuktaḥ)라고 풀이한다. 이러하기에 우빠니샤드는 ‘요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ChUp 1.1.10의 주제는 음절 ‘옴’이고, 주된 내용은 음절 ‘옴’에 대해 지식을 가진 채로 행하는 제의가 지식을 가지지 않은 채로 행하는 제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이란 음절 ‘옴’에 대한 지식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음절 ‘옴’에 대한 믿음이고, 우빠니샤드로 지시되는 요가란 음절 ‘옴’에 대한 요가이다. 그리고 음절 ‘옴’에 대한 요가란 우빠니샤드 문헌에서 대개 음절 ‘옴’에 대한 명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빠니샤드는 요가로서의 명상에 다름 아니다. 요가로서의 명상은 제의의 결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에, 우빠니샤드란 ‘⑤제의의 결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인 요가로서의 명상’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TaUp 2.9.1과 TaUp 3.10.6의 경우는 ‘ity upaniṣat’(이러함이 우빠니샤드이다)라는 형태로 사용되므로 함께 묶을 수 있다. 장절의 마지막에 어떠한 맥락도 없이 ‘ity upaniṣat’라고 등장하기 때문에 상까라의 주석이 아니고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상까라는 『따이트리야 우빠니샤드 주석』(*Taittirīya-upaniṣad-bhāṣya*, 이하 TaUpBh) 2.9.1에서 ‘ity upaniṣat’를 “이 장(章)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브라흐만에

25) tenobhau kuruto yaś caitad evaṃ veda yaś ca na veda. nānā tu vidyā cāvidyā ca. yad eva vidyayā karoti śraddhayopaniṣadā tad eva viryavattaram bhavati.

대한 지식으로서 우빠니샤드이다. 모든 지식들 가운데 지고한 비밀을 밝혔다는 뜻이다.”²⁶⁾라고 풀이한다. 따라서 우빠니샤드는 ‘실재에 대한 지식, 지고한 비밀’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까라는 TaUpBh 3.10.6에서도 우빠니샤드를 ‘지고한 아뜨만에 대한 지식’(paramātmajñānam)이라고 풀이한다. 요컨대 우빠니샤드란 ‘⑥지고한 비밀로서 실재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우빠니샤드가 실재에 대한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ChUp 8.8.4-5에 대한 상까라의 주석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 ChUp 8.8.4: 이러한 우빠니샤드를 가지게 될 자들은, 선신(善神)이든지 악신(惡神)이든지 패하게 될 것이다. ... 그는 실로 그들에게 이 우빠니샤드를 알려주었다.²⁷⁾
- ChUp 8.8.5: 왜냐하면 이러한 우빠니샤드는 악신들의 것이기 때문이다.²⁸⁾

상까라는 ChUpBh 8.8.4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우빠니샤드의 유의어로 지식(vijñāna)과 확신(niścaya)을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우빠니샤드와 관계하는 문장을 “육체를 아뜨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우빠니샤드를 알려주었다 즉 말했다”²⁹⁾라고 풀이한다. 이 경우에는 상까라가 우빠니샤드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앞서 ‘가지게 될’ 우빠니샤드를 나중에

26) itīyam evaṃ yathoktā asyāṃ vallyāṃ brahmavidyopaniṣat. sarvābhyaḥ vidyābhyaḥ paramarahasyaṃ darśitam ity arthaḥ.

27) etadupaniṣado bhaviṣyanti devā vāsura vā te parābhaviṣyantīti. ... tebhyaḥ haitām upaniṣadam provāca. 여기서 우빠니샤드를 가지는 자가 패하게 된다고 말하는 경우에 이 우빠니샤드란 육체를 아뜨만으로 아는 것과 관계한다.

28) asurāṇāṃ hy eṣopaniṣat.

29) śarīrātmabuddhiḥ yopaniṣat tām eupaniṣadam provāca uktavān.

‘알려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우빠니샤드의 의미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ChUpBh 8.8.4에서 우빠니샤드는 ‘지식, 확신’을 의미한다. 상까라는 ChUpBh 8.8.5에서도 우빠니샤드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하나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상, 그 의미가 지식이나 확신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다. 이러한 점에서 ChUp 8.8.4-5의 논제가 아프만이기 때문에 우빠니샤드란 ‘㉞아프만과 관련된 지식이나 확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 용례들 가운데 복합어의 형태인 것을 함께 묶어 다룰 수 있다. ‘brahman’이라는 말과 복합어를 이루는 ChUp 3.11.3, ŚvUp 1.16과 ‘veda’라는 말과 복합어를 이루는 TaUp 1.11.4, ŚvUp 5.6이다.

- ChUp 3.11.3: 이와 같이 이 ‘브라흐만 우빠니샤드’를 아는 자는.³⁰⁾
- ŚvUp 1.16: 그것은 ‘최상의 지선(至善)이 자리 잡은 브라흐만’이다.³¹⁾
- TaUp 1.11.4: 이는 가르침이다. 이는 ‘베다의 우빠니샤드’이다.³²⁾
- ŚvUp 5.6: 그것(브라흐만)은 ‘베다의 비밀스러운 우빠니샤드’들 속에 숨겨져 있다네.³³⁾

상까라는 ChUpBh 3.11.3에서 ‘브라흐만-우빠니샤드’라는 복합어를 ‘베다의 숨겨진 것 즉 베다의 비밀’(vedaguhya)이라고 풀이한다.³⁴⁾ 또한 그는 TaUpBh 1.11.4에서 ‘베다-우빠니샤드’라는 복

30) ya etām evaṃ brahmopaniṣadaṃ veda.

31) tad brahmopaniṣatparaṃ tad brahmopaniṣatparam.

32) eṣa upadeśaḥ. eṣā vedopaniṣ

33) tad vedaguhyopaniṣatsu gūḍa

34) 여기서 ‘브라흐만’은 ‘베다’를 의미한다. 브라흐만이 우빠니샤드에서 ‘진리의 공식’(a formulation of truth), ‘베다’, ‘우주의 궁극적이고 기초적인 본질’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일찍이 Olivelle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합어를 ‘베다의 비밀’(vedarahasya) 또는 ‘베다의 취지’(vedārtha)라고 풀이한다. 그리고 그는 『슈베따슈바따라 우빠니샤드 주석』(Śvetāśvatara-upaniṣad-bhāṣya, 이하 ŚvUpBh) 5.6에서 ‘베다-비밀-우빠니샤드’(vedaguhyopaniṣad)라는 복합어를 ‘베다들의 비밀스러운 우빠니샤드들’(vedānām guhyopaniṣadaḥ)이라고 풀이한다. 이 경우에 브라흐만이 베다들의 비밀스러운 우빠니샤드들 속에 숨겨져 있으므로, 우빠니샤드는 문장이나 지식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복합어들을 통해서 우빠니샤드란 ‘⑧비밀 자체 또는 비밀과 관련된 그 무엇(문장, 지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상까라가 ŚvUp 1.16의 ‘브라흐만-우빠니샤드-지선’(brahmopaniṣatparam)이라는 복합어를 ŚvUpBh에서 ‘최상의 지선이 자리 잡은 브라흐만’(upaniṣannam asmin param śreya)³⁵⁾이라고 풀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빠니샤드라는 말은 과거분사의 형태로 간주되면서 ‘자리 잡은, 확립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는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저 참조사항으로만 여길 필요가 있다.³⁶⁾

다음으로 KeUp 4.7의 경우는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문답의 형태로 세 번이나 등장한다. 그 대화는 다음과 같다.

- KeUp 4.7: [문]: 당신이시여, 우빠니샤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Olivelle(1998) p. 26 참조. 참고로,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Brahma-sūtra-bhāṣya*, 이하 BSBh) 1.1.25에서 상까라는 ChUp 3.11.3의 ‘브라흐만-우빠니샤드’를 ‘베다-우빠니샤드’로 풀이하지만 그 이상의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 35) 글자 그대로는 ‘그것(브라흐만)에 최상의 지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한다.
 36) ‘upaniṣad’를 과거분사로 풀이하는 것은 고대의 주석가인 드라마디(Dramiḍa)에게서도 확인된다. 그는 우빠니샤드를 “브라흐만에 자리 잡게 되는 것 또는 몰입해 있는 것이 우빠니샤드이다”(brahmaṇi upaniṣanneti upaniṣat)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Chari(2002) Introduction p. xvii 참조.

그대는 우빠니샤드를 들었노라! 실로 우리는 브라흐만과 관계되는 우빠니샤드를 그대에게 말했노라!³⁷⁾

상까라는 『케나 우빠니샤드 주석』(*Kena-upaniṣad-bhāṣya*, 이하 KeUpBh) 4.7에서 우빠니샤드라는 말에 대해 비교적 선명하게 해설을 내놓는다. 그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우빠니샤드가 ‘생각해야만 하는 비밀’(rahasyam yac cintyam)이라고 말한 뒤에 뒤따르는 우빠니샤드에 대해 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빠니샤드는 모두 ‘생각해야만 하는 비밀’을 가리킨다. 게다가 그는 마지막 문장을 해설하면서 ‘브라흐만과 관계되는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지고한 아뜨만과 관계하는(paramātmaviṣaya) 우빠니샤드’를 뜻한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 우빠니샤드란 ‘㉠아뜨만과 관계하여 생각해야만 하는 비밀’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KeUp 4.7의 우빠니샤드는 4.8-9에서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은 채로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상까라는 KeUpBh 4.8-9에서 그 우빠니샤드가 ‘브라흐만(아뜨만)에 대한 지식’(brahma-vidyā)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³⁸⁾

이제 그 다음으로 2격 단수 즉 ‘upaniṣadam’이라는 형태가 사용되는 나머지 두 경우를 함께 묶어 다룰 수 있다. ChUp 1.13.4와 TaUp 1.3.1의 경우이다.

- ChUp 1.13.4: 사마 찬가에 관한 이 우빠니샤드를 이와 같이 아는

37) upaniṣadam bho brūhiti. uktā ta upaniṣat. brāhmīm vāva ta upaniṣadam abrūmeti.

38) 필자가 생각하기에 KeUp 4.7-8은 상까라의 주석에 의존하지 않은 채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에 고전 우빠니샤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eUp 4.7에서는 ‘브라흐만과 관계되는 우빠니샤드’를 말했다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와 관계되는 우빠니샤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KeUp 4.8에서는 우빠니샤드의 바탕, 부위, 처소를 각각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자에게는.³⁹⁾

- TaUp 1.3.1: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결에 대한 우빠니샤드를 우리가 설명할 것이다.⁴⁰⁾

상까라는 ChUpBh 1.13.4에서 우빠니샤드의 유의어로 ‘darśana’를 제시하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ChUp 1.13.1-3에서 사마 찬가의 추임새를 지시하는 13개의 ‘스토바’(stobha)가 주제이고, ChUpBh 1.13.1-3에서 상까라가 여러 차례 스토바에 대한 계속적 명상을 언급하므로, ‘darśana’는 ‘명상 또는 계속적 명상’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TaUpBh 1.3.1에서 상까라는 ‘연결에 대한 우빠니샤드’(saṃhitāyā upaniṣadam)를 ‘saṃhitāviṣayaṃ darśanam’(연결과 관계하는 다르샤남)이라고 풀이한다. 여기서도 ‘darśana’라는 말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ChUp 1.13.4에서처럼 이 말은 ‘명상 또는 계속적 명상’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TaUp 1.3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3.1에서는 연결의 대상들을 다섯 가지 열거하면서 ‘세상과 관련된 것, 빛과 관련된 것, 지식과 관련된 것, 생식(生殖)과 관련된 것, 육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그 다섯 가지를 ‘위대한 연결’(mahāsaṃhit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1.3.4에서는 바로 이 위대한 연결을 ‘안다면’ 각 다섯 가지의 양상마다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듯이 말한다. 바로 여기서 상까라는 TaUp 1.3.4의 ‘안다’(veda)라는 동사가 ‘계속적 명상’(upāsanam)을 의미한다고 해설한다. 결국 다섯 가지를 아는 것은 다섯 가지의 연결에 대해 계속적 명상을 하는 것이요, 그 각각에 대해 계속적 명상을 하는 것이다. 상까라는 TaUpBh 1.3.1에

39) ya eṭām evaṃ sāmnām upaniṣadam vedopaniṣadam veda.

40) athātaḥ saṃhitāyā upaniṣadam vyākhyāsyāmah.

서 그 다섯 가지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각각을 ‘darśana’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darśana’는 계속적 명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경우 모두 ‘darśana’는 계속적 명상을 지시하므로, 우빠니샤드란 ‘⑩계속적 명상’이다.

마지막으로 BrUp 4.2.1에 등장하는 ‘upaniṣadbhiḥ’와 ‘uktopaniṣatka(h)’라는 두 표현과 관계하여 상까라는 우빠니샤드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다. 앞의 표현은 “바로 그와 같이 당신은 이러한 우빠니샤드들과 함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⁴¹⁾에서 등장하는데, 상까라는 이 문장을 “바로 그와 같이 당신은 이러한 우빠니샤드들을 가진 그러한 브라흐만들을 계속 명상함으로써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⁴²⁾라고 풀이할 뿐이다. 또한 뒤의 표현에 대해서는 다만 ‘스승들로부터 우빠니샤드들을 들은 자’라고 풀이할 뿐이다.⁴³⁾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빠니샤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IV. 그 외 상까라의 풀이

상까라는 고전 우빠니샤드에 등장하는 우빠니샤드라는 말을 풀이하는 것과 별도로 이 말을 가끔 그러한 용례와는 무관하게 풀이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BrUpBh의 서문, 『까타 우빠니샤드 주석』(*Kaṭha-upaniṣad-bhāṣya*, 이하 KaUpBh) 서문, 『우빠데샤 사하스

41) evam evaitābhir upaniṣadbhiḥ samāhitātmāsi.

42) evam eva etāni brahmāṇi etābhir upaniṣadbhir yuktāni upāsinaḥ samāhitātmā asi.

43) uktās copaniṣada ācāryais tubhyaṃ sa tvam uktopaniṣatkaḥ.

리』(*Upadeśa-sāhasrī*, 이하 US) 운문편 1.25-26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BrUpBh 서문의 시작에서 상까라는 윤회의 원인을 파기할 수 있는 수단인 ‘브라흐만과 아뜨만의 동일성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는 것이 주석의 목적이라고 밝힌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브라흐만에 대한 이러한 그 지식이 ‘우빠니샤드’라는 말에 의해 지시된다. 이것(우빠니샤드)에 몰두하는 자들의 경우에 윤회와 그 원인이 완전무결하게 종결되기 때문이다. ‘우빠’와 ‘니’를 접두사로 가진 어근 ‘사드’(sad)가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책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므로 ‘우빠니샤드’라고 불린다.⁴⁴⁾

여기서 상까라는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지시하는 바를 두 가지 제시한다. 하나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책’이다. 우빠니샤드라는 말 자체가 ‘윤회와 그 원인이 완전무결하게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빠니샤드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또한 우빠니샤드라는 책(*grantha*)도 ‘윤회와 그 원인이 완전무결하게 종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빠니샤드는 책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상까라는 KaUpBh 서문에서 우빠니샤드에 관해 방대한 분량의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도 그는 그 시작부터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upa’, ‘ni’, ‘√sad’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면서⁴⁵⁾

44) *seyam brahmadevyā upaniṣacchabdavācyā, tatparāṇām sahetoh saṃsārasyātyantāvasādanāt. upanipūrvasya sades tadarthatvāt. tādarthyād grantho 'py upaniṣad ucyate.*

45) 상까라는 ‘upaniṣad’를 ‘upasad’와 ‘ni’로 나누면서 전자가 ‘(우빠니샤드라는 말로 불리는 지식에) 다가간 뒤에’(upagamyā)를 뜻하고 후자가 ‘몰두하고(niṣṭhatayā) 확신하면서(niścayena) 그것(지식)에 열중하는 것’을 뜻한다고도 설명한다. ‘ni’의 경우 ‘niṣṭhatā’와 ‘niścaya’를 그 어원으로 제시한 셈이다. 따라서 우빠니샤드의 또 다른 어원적 의미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에 다가간 뒤에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열중하는

‘√sad’가 파쇄(viśaraṇa), 도달(gati), 종결(avasādana)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풀이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파쇄, 도달, 종결의 의미 때문에 우빠니샤드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 지식은 해탈을 욕구하는 자들과 관계하여 윤회의 씨앗인 무지 등을 파쇄하고, 브라흐만에 도달하게끔 하고, 태아, 태어남, 늙음 등의 불행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종결의 의미는 BrUpBh의 서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상까라는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지식만을 의미한다는 데서 논의를 그치지 않고 책을 의미한다는 것에까지 더 나아간다. 그는 비록 ‘√sad’의 여러 의미들이 지식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책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책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므로 책에 적용되는 것도 합당하다고 설명한다. 우빠니샤드라고 불리는 책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BrUpBh의 서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래서 상까라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우빠니샤드’라는 말은 지식과 관계하여 일차적 어법으로 쓰이고 책과 관계하여 이차적 어법으로 쓰인다.⁴⁶⁾

결과적으로 KaUpBh 서문에서도 우빠니샤드라는 말은 ‘①브라흐만에 대한 지식’과 ‘②책’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까라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KaUpBh 서문에서 상까라가 우빠니샤드라는 말을 분석한 내용은 US 운문편 1.25-2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KaUpBh와 US 가운데 어느 저작을 먼저 썼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두 저작에서 관련 내용은 상당히 흡사하다. 다음은 각각 US 운문편 1.25와

것’이다.

46) KaUpBh 서문: tasmād vidyāyām mukhyayā vṛtyā upaniṣacchabdo vartate, granthe tu bhaktyeti.

1.26이다.

따라서 무지를 떠나고 윤회를 멈추기 위해서, 즉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빠니샤드가 시작되었다.⁴⁷⁾

‘우빠니샤드’란 ‘우빠’와 ‘니’를 접두사로 가진 어근 ‘샤드’(sad)에 [명사를 만드는] 크비쁘(kvip) 접미사가 붙은 [말일] 것이다. 태아 등의 [불행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무지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우빠니샤드이다].⁴⁸⁾

상까라의 문장들을 그대로 읽는다면, 여기서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1.26에서 보듯이 ‘약화’와 ‘멈춤’이라는 두 가지이다. 이는 각각 KaUpBh 서문의 ‘종결’과 ‘파쇄’에 대응한다. KaUpBh 서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제시되는 ‘도달’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다.⁴⁹⁾ 그럼에도 1.25와 KaUpBh 서문을 참고로 한다면, 약화와 멈춤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이다. 따라서 우빠니샤드라는 말은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게다가 1.25에서 보듯이 우빠니샤드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담은 책’을 가리킨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규정하기 위해 우빠니샤드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상 우빠니샤드라는 말은 그 지식을 담은 문헌 이외의 다른 것을 지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US 운문편 1.25-26에서도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의미는 BrUpBh 서문이나 KaUpBh 서문과 거의 다를 바 없다.

47) tasmād ajñānahānāya saṃsāravinivṛttaye, brahmavidyāvīdhānāya prārabdhopaniṣat tv iyam.

48) sader upanipūrvasya kvipi copaniṣad bhavet, mandikaraṇabhāvāc ca garbhādeḥ śātanāt tathā.

49) 물론 번역가들이 US의 주석들을 참고로 하여 ‘도달’의 의미를 포함하는 다소 상이한 번역들을 내놓기는 한다.

V. 상까라와 ‘우빠니샤드’의 의미

간략하게 말해서 이상에서 논의한 것들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전 우빠니샤드에 등장하는 우빠니샤드라는 말’에 대해 상까라가 풀이한 것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규명해 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까라가 그의 몇몇 저작에서 우빠니샤드라는 말을 별도로 풀이한 것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규명해 본 것이다. 전자와 후자를 이와 같이 구분해야만 하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상까라가 주석가로서 불가피하게 우빠니샤드의 의미를 맥락에 따라 풀이해야 했다면 후자의 경우 그가 비교적 자유롭게 그 의미를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맞게 풀이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전 우빠니샤드의 우빠니샤드에 대한 풀이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⁵⁰⁾

- ①어떤 것에 가까이 다가가게끔 지시하는 말
- ②관심을 가지게끔 비밀스럽게 지시하는 말
- ③계속적 명상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들
- ④실재나 그 수단인 명상에 대한 지식수단(문헌)
- ⑤제외의 결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인 요가로서의 명상
- ⑥지고한 비밀로서 실재에 대한 지식
- ⑦아뜨만과 관련된 지식이나 확신

50) 우빠니샤드라는 말에 대한 이 10가지 의미들은 단지 상까라의 풀이에 근거해서 도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고전 우빠니샤드의 문맥을 고려하면서 그 자체만으로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10가지와는 다소 상이한 의미들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⑧비밀 자체 또는 비밀과 관련된 그 무엇(문장, 지식)
- ⑨아뜨만과 관계하여 생각해야만 하는 비밀
- ⑩계속적 명상

그리고 우빠니샤드에 대한 별도의 풀이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 ⑪브라흐만에 대한 지식
- ⑫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담은 책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상까라로부터 도출한 의미들을 통해서 우빠니샤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까라로부터 도출한 의미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든지 간에 그 평가 자체가 자의적인 추정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까라가 우빠니샤드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바로부터 지나치게 멀리 나아가지만 않는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설득력 있는 추정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우빠니샤드라는 말의 의미를 따지는 경우에 이 말이 ④나 ⑫에서처럼 베다 시대의 특정한 문헌을 지칭한다는 것은 상까라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Olivelle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문헌은 그 문헌이 성립되던 당대에 우빠니샤드라고 불리지 않았을 테지만 점차적으로 우빠니샤드라는 말 자체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빠니샤드라는 문헌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까라의 시대에는 아주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것이 ‘우빠니샤드’로 불리든 ‘베단따’로 불리든⁵¹⁾ 이미 독립된 문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상까라는 우빠니샤드가 브

51) BSBh에서 상까라는 고전 우빠니샤드를 ‘우빠니샤드’, ‘베단따’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부른다.

라흐만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문헌 또는 책을 지칭한다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④나 ⑫와 같은 의미는 상카라도 언급했듯이 우빠니샤드의 일차적 의미가 아니라 이차적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특정한 종류의 문장을 지시하는 ③과 ⑧의 경우도 ④와 ⑫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④와 ⑫에서는 우빠니샤드가 명상을 포함하든 그렇지 않든 지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담고 있는 문헌마저 우빠니샤드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③의 경우는 우빠니샤드가 명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명상을 담고 있는 문장마저 우빠니샤드라고 불린다. ⑧의 경우는 우빠니샤드가 비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담고 있는 문장마저 우빠니샤드라고 불린다.

그리고 ①에서 ‘어떤 것에 가까이 다가가게끔’이라는 부분은 우빠니샤드의 어원적 의미로 언급되는 ‘가까이, 다가감’과 관련된다. 또 ②에서 ‘관심을 가지게끔’이라는 부분은 ‘지시하는 말’ 즉 ‘이름’에 수반되는 특성에 지나지 않는다.⁵²⁾ 즉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특성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가가게끔 하는 것’과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흥미를 유발하는 것’일 경우에 가능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적어도 우빠니샤드 시대에는 ‘숨겨져 있거나 비밀스러운 것’일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①과 ②를 통해서는 우빠니샤드가 비밀스러운 어떤 말이나 이름을 지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이상과 같은 특수한 의미들과는 별도로, 나머지 것들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공통적인 요소로는 3가지 중심어를 들 수 있다. 그것들은 ‘비밀’, ‘명상’, ‘지식(확신)’이다. 비밀은 ②, ⑥, ⑧, ⑨에서 확인되고, 명상은 ③, ④, ⑤, ⑩에서 확인되며, 지

52) 다수의 번역가들은 ①, ②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우빠니샤드를 ‘비밀스러운/신비스러운 명칭/이름’이라고 번역하는 편이다.

식은 ⑥, ⑦, ⑧, ⑪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우빠니샤드의 의미는 이러한 3가지 중심어와 관계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3가지는 분명 오늘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우빠니샤드의 의미와 한편으로는 유사하다. 반면에 상까라가 명상을 우빠니샤드의 중요한 의미로 제시한 것은 새롭고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바로 이 명상은 상까라의 체계에서 지식과 비교하여 평가절하되는 것으로 우빠니샤드의 의미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명상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서구의 학자들이 제안하는 의미들인 ‘등치,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수행법이기에 때문이다.⁵³⁾

만약 상까라가 우빠니샤드를 크게 비밀, 명상, 지식이라는 3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이 3가지는 서구의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의미들과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㉑의 ‘우빠사나로서의 숭배’는 우빠사나로서의 명상과 다르지 않다. ㉒의 ‘비밀스러운 교의’는 비밀과 지식의 결합이다. ㉓, ㉔, ㉕, ㉖, ㉗의 다섯 가지에서 그 핵심인 등치, 연결, 관계의 경우에도, 우선 등치, 연결, 관계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기에 비밀스러움을 특성으로 한다. 게다가 등치, 연결, 관계는 명상과 지식에 포섭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명상이란 등치,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삼는 것이고 지식이란 등치, 연결, 관계의 토대인 실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게도 등치, 연결, 관계의 토대란 등치되고 연결되고 관계되는 그 존재들을 가능케 하는 실재일 수밖에 없다. 다르게 말해, 존재들을 그렇게 배열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존재들의 배후에 있는 지배적인 실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⁵⁴⁾ 이로부터

53) 물론 우빠니샤드의 모든 등치, 연결, 관계가 명상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은 명상과 무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곧장 지식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54) Brereton(1990) pp. 124-125 참조.

터 또한 우빠니샤드 자체가 등치, 연결, 관계를 가지는 모든 존재들의 최종적 구성요소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㉑의 ‘유효한 힘’과 ㉒의 ‘밑에 놓인 실재’라는 추정은 우빠니샤드가 모든 등치, 연결, 관계의 토대인 것을 지시하는 말이라고 해석한 결과이다.⁵⁵⁾

이상과 같이 서구의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의미들은 상까라의 의미들과 전반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분명히 상이한 점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상까라가, 우빠니샤드에 직접적으로 등치, 연결, 관계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서구의 학자들은 우빠니샤드가 단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에 사로잡혀 각자가 차별되는 하나의 의미만을 제시했지만 상까라는 텍스트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을 제시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들 모두가 제시한 의미들의 집합이 그나마 상까라의 의미들과 전반적으로 관련성을 가질 뿐, 그들 각각이 제시한 의미는 상까라의 의미들과 비교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러한 연관에서, 우빠니샤드라는 말에 대한 상까라의 풀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우빠니샤드는 기본적으로 ‘말(이름), 비밀, 명상, 지식’ 등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가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해야 한다. 즉 우빠니샤드는 텍스트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등장하기에 우빠니샤드에서 ‘브라흐만’이라는 말이 그러한 것처럼 그 의미를 한 가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수백 년 동안 베다의 여러 분과들이 우빠니샤드라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55) Cohen이 ‘밑에 놓인 실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좀 더 정교하게 말해, 우빠니샤드가 베다의 제의들에 반동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제의들의 밑에 놓인 형이상학적 의미와 깊이 관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Cohen(2008) p. 4, 7 참조.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만약 이러하다면, 우빠니샤드라는 말은 주로 명상, 숭배, 섭짐에 국한되는 의미를 가지는 우빠사나라는 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임에 틀림없다.

둘째, 우빠니샤드는 무언가가 가지는 ‘비밀스러움’이라는 특성을 넘어 ‘비밀’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빠니샤드가 비밀스러운 말, 비밀스러운 문장, 비밀스러운 명상, 비밀스러운 지식 등 비밀스러운 특성을 함의하는 경우와 비밀 그 자체를 함의하는 경우는 다른 전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자의 의미는 대개 우빠니샤드가 감추기, 숨기기 등의 비밀스러운 방법론에 의거한다는 전망과 관련되어 있는데 후자의 의미인 경우에 그 방법론 자체가 우빠니샤드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빠니샤드가 비밀성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면 앞으로 우빠니샤드의 방법론에 더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빠니샤드는 ‘우빠사나라로서의 명상’과 ‘실재에 대한 지식’을 모두 지시하는데, 이는 전자로부터 후자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 결과일 것이다. 공교롭게도 상까라가 명상의 의미라고 풀이하는 ③, ⑤, ⑩은, 물론 표본이 많지 않지만, BrUp, ChUp, TaUp와 같이 고전 우빠니샤드 가운데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텍스트와 관계한다. 게다가 우빠니샤드의 관심이 명상에서 지식으로 전이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우빠니샤드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우빠사나’와 유의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비드야’(vidyā) 등과도 유의적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비드야’라는 말은 ‘우빠사나라로서의 명상’에 대한 지식을 뜻하기도 하고 ‘브라흐만, 아뜨만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지식을 뜻하기도 한다.⁵⁶⁾ 우빠니샤드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명상한다’는 것

56) 상까라의 경우에 BSBh에서 ChUp 3.14의 ‘산딜랴의 명상적 지식’(Śaṅḍilya-vidyā), ChUp 3.1-11의 ‘마두(벌꿀)의 명상적 지식’(Madhu-vidyā) 등과 같이 수십 개의 ‘vidyā’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은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고 ‘앎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상이 포괄적 의미의 지식에 포함될 수 있는 이상, 점차적으로 지식은 우빠니샤드라는 말을 대표하는 의미가 되었을 수 있다.

넷째, 순전히 상까라의 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①-⑫ 전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결코 제의를 우빠니샤드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는다. 최근 브라흐마나와 우빠니샤드 사이에 전통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상까라는 전략적으로 우빠니샤드의 의미가 제의와 관련된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거나 아예 그 의미가 제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상까라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⑪, ⑫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우빠니샤드의 의미로 지식만을 강조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명상이라는 의미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오직 해탈과 관련된 그의 철학적 관심이 명상이 아니라 실재에 대한 지식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까라의 체계에서 명상이 지식의 수단이고 지식이 해탈의 수단인 이상, 그는 우빠니샤드의 용례를 풀이해야만 하는 경우에 ③, ⑤, 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명상이라는 의미를 살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상이라는 의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섯째, 상까라가 우빠니샤드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해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 서구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등치, 연결, 관계를 ‘존재들 사이의 연결’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다면, 우빠니샤드는 연결을 지시하는 말이나 문장, 연결이 낳는 비밀스러운 특성, 연결 그 자체의 비밀성, 연결을 바탕으로 삼는 명상, 연결되는 존재들의 배후에 있는 힘, 연결의 토대인 실재에 대한 지식 등을 뜻할 수 있다. 즉 우빠니샤드는 연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의미가 다소간 변주되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brahma-vidyā’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브라흐만의 명상적 지식’이 아니라 ‘브라흐만이라는 실재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약호 및 참고 문헌

- BṛUp : *Bṛhadāraṇyaka-upaniṣad*.
BṛUpBh: *Bṛhadāraṇyaka-upaniṣad-bhāṣya*.
BSBh: *Brahma-sūtra-bhāṣya*.
ChUp: *Chāndogya-upaniṣad*.
ChUpBh: *Chāndogya-upaniṣad-bhāṣya*.
KaUpBh: *Kātha-upaniṣad-bhāṣya*.
KeUp: *Kena-upaniṣad*.
KeUpBh: *Kena-upaniṣad-bhāṣya*.
MuUp: *Muṇḍaka-upaniṣad*.
MuUpBh: *Muṇḍaka-upaniṣad-bhāṣya*.
ŚvUp: *Śvetāśvatara-upaniṣad*.
ŚvUpBh: *Śvetāśvatara-upaniṣad-bhāṣya*.
TaUp: *Taittirīya-upaniṣad*.
TaUpBh: *Taittirīya-upaniṣad-bhāṣya*.
US: *Upadeśa-sāhasrī. Śaṅkara's Upadeśasāhasrī*. ed. Sengaku Mayeda. Tokyo: The Sankibo Press, 1973.

- Black, Brian (2007). *The Character of the Self in Ancient India: Priest, Kings, and Women in the Early Upaniṣad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rereton, Joel (1990). "The Upanishads", *Approaches to the Asian Classics*. ed. Wm. T. de Bary and I. Bloo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p. 115-135.
- Chari, S.M. Srinivasa (2002). *The Philosophy of the Upaniṣads*.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 Cohen, Signe (2008). *Text and Authority in the Older Upaniṣads*. Leiden: Brill.
- Deussen, Paul (1999). *The Philosophy of the Upanishads*. Indian Edition.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Olivelle, Patrick (1998). *The Early Upaniṣa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harma, Chandradhar (1960). *A Critical Survey of Indian Philosophy*.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中村 元(1983). 『印度思想史』, 김용식, 박재권 역. 서울: 서광사.

Abstract

Meaning of the Word ‘upaniṣad’ and Śaṅkara’s
Explanation

Park, Hyo Yeo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hat is the meaning of the word ‘upaniṣad’ appeared in the Classical Upaniṣads? With regard to its meaning, a number of western scholars suggested respectively a meaning such as ‘worship pertinent to upāsana, secret doctrine, equivalence, connection, relation, effective power, underlying reality’. However, Śaṅkara who wrote the first and the most authoritative commentary on the Classical Upaniṣads explains this word as having several meanings. Those meanings suggested by him are the next thing to twelve and yet their cores are ‘secret, meditation, knowledge’.

Based on Śaṅkara’s explanation of the word ‘upaniṣad’, the following estimations are possible. Firstly, as this word has multi-dimensional meanings basically, so it is not to be limited to a single meaning. Secondly, this word signifies secret itself beyond merely the secret characteristic of something. If so, it is necessary to turn our attention much more to methodology of the Upaniṣads. Thirdly, the meaning of this word is extended from ‘meditation as upāsana’ to ‘the knowledge of reality’. Fourthly, from Śaṅkara’s philosophical point of view, he never associates the meaning of this word with the rituals directly. Further, he goes as far as to ex-

clude the meaning of mediation intentionally by emphasizing the knowledge alone as its meaning. Fifthly, considering two things i.e., the meanings suggested by Śaṅkara and ‘connection’ suggested by western scholars, one might say that this word means a word or a sentence pointing out connection, secret characteristic brought by connection, secrecy of connection itself, meditation based on connection, power underlaid in connected-existences, the knowledge of reality which is the only foundation of connection, etc. In short,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word ‘upaniṣad’ may have several meanings in association with ‘connection’ directly or indirectly.

Keywords: the word ‘upaniṣad’, meaning, Śaṅkara, multi-dimensional meanings, connection

투고 일자 : 2017년 3월 31일

심사 기간 : 2017년 4월 5일 ~ 23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4월 24일